강정마을 평화운동서 스리랑카 인권운동까지 힘 보태야

광주인권상 수상자들 오월정신의 전도사로

5 광주정신 세계화를 위한 과제

민주·인권 교육프로그램 아시아 단체와 연대 강화

광주 인권상 수상자 20명 광주정신의 전도사로

지난 2010년 11월 7년간의 가택연금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2004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시민들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 소식을 전해듣고 환호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내년이면 35주년을 맞는 5·18 민중항쟁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들에게 귀중한 이정표(里程標)가 되고 있다.

5·18을 계기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한 광주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우뚝 선 것이다.

특히 국내외 민주·인권·평화운동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은 '광주 정신', 즉 오월 대동정신을 알리는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

오월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수상자들은 인권이 열악한 자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광주 정신을 전파하는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5·18 민중항쟁 34주년을 맞아 다섯 차례에 걸쳐 이들의 자국 내 활동사항 등을 취재함으로써 5·18 정신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봤다. 수상자들은 5·18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의 민주·인권·평화운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광주 정신은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싸우는 세계 모든 이들에게 스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독재정권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광주시민들의 모습은 민주·인권에 굶주린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선 개선돼야 할 점도 많았다.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민주·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아시아 민주·인권단체와의 연대 강화 등 운영·관리시스템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까지 광주인권상 및 특별상 수상자는 모두 20명(특별상 2명 포함). 나라별로는 ▲인도 3명 ▲한국 2명 ▲버마 2명 ▲인도네시아 2명 ▲스리랑카 2명 ▲파키스탄·네팔·동티모르·이스라엘·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이란·태국 1명씩 등 모두 14개국이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민주·인권환경이 열악한 나라 출신이다. 수상자들은 광주에서 5·18의 전개 과정과 의미 등을 보고 배운 뒤 자국으로 돌아가 5월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열악한 민주·인권 현실에 광주 정신을 접목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또 청년·여성·난민·노동 등 각 사회단체에서 일하며 소외된 서민과 소수민족의 아픔을 달래는 한편,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5월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처한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희망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5·18 재단의 민주·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5·18이 명실공히 아시아 민주화의 선진 모범사례로 우뚝 서기 위해선 세계 여러 인권단체들과의 연대 강화 노력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나 인권이 열악한 나라에서 5·18을 교본 삼아 가르치고 싶지만 번역된 자료가 많지 않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 2002년 광주인권상 수상단체인 (사)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강민조(73) 이사장은 "'광주 정신'은 우리나라 민주·인권 신장에 기여한 중요한 역사적 산물인데, 점차 잊혀져 가는 것 같아 아쉽다"며 "5·18이 전국화·세계화 되기 위해선 자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가가 처한 민주·인권운동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문정현(73) 신부는 "5·18 당시 학생·노동자·종교인 등 광주·전남 지역민이 나서 광주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이제는 광주가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소외받고 고통받은 이웃은 물론 민주화가 필요한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끝〉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 학술대회 세부일정

일시	발표 및 내용
13:00 ~13:30	개회사:홍성흡(전남대학교 5·18연구소장) 축사:지병문(전남대학교 총장)
	〈1부〉영남·호남지역에서의 5·18과 5월운동
13:30 ~15:00	발표주제1:5월 운동과 1980년대 대구학생운동 발표자:김상숙(고려대 강사) 토론자: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발표주제2:5·18항쟁과 부미방 사건 발표자:차성환(부산대 사회교육연구소 연구교수) 토론자:윤영덕(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발표주제3:5·18이 전북지역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과 특성 발표자:김수돈(열린전북 기자) 토론자:오승용(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2부〉공동체운동의 이론적 모색
15:20 ~17:20	발표주제1:봉기와 애도-5·18과 세월호 사이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다 발표자:한보희(연세대 비교문학 강사) 토론자:정문영(코넬대 역사학과 박사수료)
	발표주제2:『창평일기』로 본 농촌사회의 계(契) 조직과 공동체 원리 발표자:안승택(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토론자:이상균(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발표주제3:공동체 의미의 재해석과 확장-공동체를 정의하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발표자:김형주(전남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토론자:김현경(이화여대 교양교육원 강사)
	발표주제4:79~80' 항쟁 이후 공동체 '되기(becoming)' 발표자:유경남(전남대 사학과 박사수료) 토론자:이영진(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
17:20	폐회
17:30	전남대 햇들마루

5·18과 세월호 사이서 공동체를 생각하다

10일 전남대서 5·18 34주년 학술대회

5·18 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학술대회가 오는 10일 오후 1시 전남대 용지관 3층 광주은행홀에서 열린다.

전남대 5·18 연구소가 주관하고 전남대가 주최하는이번 34주년 기념학술대회는 '영남·호남지역에서 5·18과 5월 운동'(1부)과 '공동체운동의 이론적 모색'(2부)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1부에선 ▲5월 운동과 1980년대 대구학생운동(주제 발표 김상숙, 토론자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 ▲5·18항쟁과 부미방 사건(〃 차성환 부산대 사회교육연구소 연구교수, 〃 윤영덕 전남대 5·18 연구교수) ▲5·18이 전북지역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과 특성(〃 김수돈 열린전북 기자, 〃 오승용 전남대 5·18 연구교수)이라는 주제가 발표된다.

1부 주제엔 5·18 당시 호남·영남에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과 5월 운동에 주목, 전국적인 상황과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2부에선 ▲봉기와 애도 : 5·18과 세월호 사이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다(발표자 한보희 연세대 비교문학 강사, 토론자 정문영 코넬대 역사학과 박사수료) ▲창평일기로 본 농촌사회의 계 조직과 공동체원리(〃 안승택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 이상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79~80 항쟁 이후 공동체 되기(〃 유경남 전남대 사학과 박사 수료, 〃 이영진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라는 주제가 발표된다.

2부 주제는 공동체 논의의 재해석과 확장을 통해 5·18의 역사적 가치의 실천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남대 5·18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5·18 민주화운동과 5·18 이후 광주·전남 이외의 호남·영남지역에서 전개됐던 민주화운동의 관련성을 살려봄으로써 5·18 연구의 전국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동체 운동의 이론적 모색을 통해 5·18의 가치를 현재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